

월급 못 받은 교사 위한 제자들의 선물



▲파이바 교사가 학생들이 선물한 상자를 열어보고 놀라고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교사를 위해 학생들이 특별한 선물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 세아라주 브레조산투에 있는 한 직업학교로 새로 부임한 브루노 파이바 교사는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해 급기야 학교에서 숙식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브라질의 관료적 제도 때문에 교사로 정식 승인을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지난 달 초 파이바 교사는 언제처럼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파이바 교사에게 감사의 쪽지를 썼다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 책상 위에 있는 쪽지를 하나씩 읽어나갔다.

이후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도 작은 선물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학생들이 상자를 열어보라는 말에 상자를 열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자에는 초콜릿과 함께 현금 400헤알(약 100달러)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돈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이바 교사를 위해 모아준 것으로, 브라질에서는 월 최저 임금이 880헤알로 꽤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모습을 한 학생이 촬영한 영상은 지난달 16일 파이바 교사의 페이스북에 공유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좀 기다려, 울고 울게”, “이것이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이다”, “멋진 학생들이다” 등 호평을 보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관 대신 BMW사용한 아들 논란

고인이 된 아버지를 관 대신 차에 태워 매장한 한 남성이 논란이다.

1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나이지리아 남성 아주부이케의 사연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부호인 이 남성은 최근 아버지를 노령으로 잃었다.

아주부이케는 늘 아버지에게 ‘언젠가 눈이 부실 만큼 멋진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마지막 여정을 제대로 배웅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 길로 지역 BMW 매장으로 가서 6만 6,000파운드(9만 달러)를 주고 새 차를 구매했다. 늦었지만 생전에 약속했던 고급 자동차 안에 아버지를 태운 뒤 죽음을 기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상여꾼들은 통나무



▲상여꾼들이 고인의 시신을 태운 차를 내려놓고 있다.

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1.8m 깊이의 움푹 파인 밧자리에 고인의 시신을 태운 차를 내려놓았다. 이 같은 장례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위성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가 고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전철 탔다가 익사할 뻔한 사연

경전철을 타고 가던 승객들이 하마터면 수장될 뻔했다.

12일 '나우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열대성 태풍 '버드'가 강타하면서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선 지난 9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여기저기에서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면서 쓰러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경전철 침수는 특히 아찔한 사고였다. 과달라하라의 경전철은 이날 테르마톨로히코역 인근에서 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바위가 잠길 정도로 침수된 구간에 들어섰다. 기관사는 침수된 구간을 통과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 뒷걸음치기 시작했지만 경전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줄기차게 비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물은 경전철의 창문 높이까지 불어났다. 당시 경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은 약 90여 명.

승객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서핑보드 등을 이용해 승객들을 구하고 있다.

당시 밖엔 최고 3m까지 물이 찬 상태여서 열차에서 빠져나간다고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열차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을 구한 건 서핑보드와 물놀이 기구 등을 갖고 달려온 주민들이었다.

한 여자승객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한 남자가 서핑보드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면서 “용감한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